

이제 봄이 막바지입니다. 가는 봄이 너무 아쉬워 달밤에 홀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올 봄엔 꽃들이 광란하듯 한꺼번에 몰려왔다가 갑자기 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남은 꽃이 있어 섭섭한 마음을 달랠 만합니다. 지금 환한 달빛 아래 무리 지은 작약과 불두화와 매발톱꽃이 한창이군요. 봄날의 마지막 둥근 달을 바라보고 있자니 문득 사무치게 떠오르는 시가 있습니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시를 조용히 외워 봅니다.



술잔을 들어 밝은 달을 불러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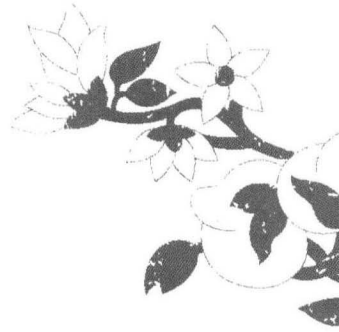
기태완

花間一壺酒, 꽃밭에서 한 병의 술을 들고

獨酌無相親[°] 홀로 따르는데 친한 벗도 없네
 舉杯邀明月, 술잔을 들어 밝은 달을 불러오고
 對影成三人[°] 그림자를 마주하니 세 사람이 되었네
 月既不解飲, 달은 본래 술을 마실 줄 모르고
 影徒隨我身[°] 그림자는 단지 나의 몸을 따를 뿐이나
 暫伴月將影, 잠시 이들을 짝하여
 行樂須及春[°] 봄을 즐기리
 我歌月裴回, 내가 노래하니 달이 배회하고
 我舞影零亂[°] 내가 춤을 추니 그림자 어지럽네
 醒時同交歡, 깨어 있을 때는 서로 즐거움을 나누고
 醉後各分散[°] 취한 후에는 각자 나뉘어 흩어지니
 永結無情遊, 영원히 무정한 교유를 맺어
 相期邈雲漢[°] 아득한 은하수에서 서로 만날 것을 기약하세

이백(李白: 701~761)의 유명한 <달빛 아래 혼자 술을 마시다月下獨酌>라는 시입니다. 때는 꽃이 만발한 달밤입니다. 그 화사한 봄밤의 정취에 취하여 시인은 술병을 들고 꽃밭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홀로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웬지 마음이 허전합니다. 이 좋은 봄밤을 술친구도 없이 혼자 보내기는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술잔을 허공에 높이 쳐들어 하늘의 밝은 달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 대하니 세 사람이 모이게 되었군요. 달은 본래 술을 마실 줄 모르고, 그림자는 다만 나의 몸을 따라다닐 뿐이지만, 어쨌거나 조촐한 봄밤의 주연이 어우러졌습니다. 취흥이 도도히 오른 시인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자 달이 배회하며 노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무슨 노래일까요? 아마 술 권하는 장진주將進酒가 아닐까요?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황하의 물이 하늘로부터 쏟아져서 바다로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고당高堂의 밝은 거울 앞에서 백발을 슬퍼하는 것을. 아침의 검은머리가 저



낙에는 하얗게 센다네. 인생에서 기회를 얻으면 반드시 즐겨야 할 것이니, 빈 술잔이 쓸쓸히 달을 대하지 않도록 하게… 한 차례 마실 때에는 반드시 삼백 잔을 들이켜야 하리… 좋은 음악과 음식 따윈 귀할 게 없지만, 단지 원하는 것은 영원히 취해서 깨어나지 않는 것이네. 예로부터 성현들은 모두 잊혀졌지만, 오직 술꾼만이 그 이름을 남긴다네.”

이제 흥이 더욱 무르익어 시인은 너울너울 춤을 춥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림자도 함께 덩실덩습니다. 밝은 달빛 아래 꽃밭에서 누군가 고성방가를 하며 홀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다면, 참으로 볼썽사나운 광태狂態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구절을 외울 때마다 가늘 길 없는 슬픔에 가슴이 메입니다. 더구나 영원히 무정한 교류를 맺어 아득한 은하수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억하지는 구절에 이르러서는 끝내 나도 모르게 눈물을 떨구고 맙니다. 봄밤의 꽃과 달빛 때문이었지만, 지금 이 시를 외운 것이 진정 후회스럽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쓸쓸해져서 한잔 술 생각이 간절해지는군요.

이백은 서역에서 갑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모친이 장경성長庚星: 태백성太白星을 꿈꾸고 낳았기 때문에 ‘백白’이라 이름지었다고 합니다. 태백太白이란 자도 결국 그 꿈과 관련이 있지요. 타고난 천재였던 그는 젊어서부터 재물이나 벼슬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검술과 궁술을 좋아하였고, 임협任俠을 임무로 삼아 남을 돕기를 좋아했습니다. 남방에서 뜻이 맞는 벗들과 시와 술로 젊음을 보내던 그가 서울로 온 것은 서울로 전임된 친구 오군吳筠을 따라서였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격이었지요. 그런데 다행히 서울에도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관이며 시인인 하지장賀知章은 이백의 시를 읽고 “당신은 속세의 사람이 아니라 선계에서 귀양온 신선(謫仙人)이다”라고 감탄했지요. 그를 통해 현종과 만난 이백은 곧 한림공봉에 임명되었고, 황제의 파티에서 악장을 짓는 궁중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타고난 자유인이었고 또한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몇몇 벗들과 어울려 밤낮으로 술집에서 취해 지내다가, 결국 스스로 벼슬을 버리고 다시 남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뒤 안사의 난 중에는 반군 속에 잘못 끼어들어 사형을 언도 받았다가 사면되는 등, 만년을 떠돌이로 불우하게 보낸 끝에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채석강에서 뱃놀이를 하던 중 술에 취해 강물 속의 달을 건지려다 익사하여 신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전설엔 큰 고래를 타고 은하수로 날아갔다고도 전해지지요. 그래서 그를 기경자鯨子라고 부른답니다. 아마 그 전설들은 모두 사실일 것입니다. 그는 원래 선계에서 귀양온 신선이었으니까요. ☞